

대기업이 국비 지원 받아 토마토 농사 '분통'

동부그룹, 유리온실 재배 6000t 곧 출하 지역 재배농 300여명 세종청사 앞 시위

골목상권 장악 논란을 빚고 있는 대기업이 토마토 재배 농사까지 뛰어 들어 지역 농민들의 반발을 사고 있다.

지역 토마토 재배농민들이 다음 달 본격적인 비닐하우스 토마토 출하를 앞두고 일손을 놓고 반발하고 있는 것은 동부그룹 계열사인 ㈜동부팜화옹이 만든 경기도 화성시 화옹지구 간척지 15ha(4만5000평)의 유리온실에서 오는 5월부터 시범 토마토가 본격 출하되기 때문이다.

아시아 최대 규모인 이 유리온실에

서는 연간 토마토 5000t을 생산할 수 있다.

또 동부그룹의 또 다른 계열사인 ㈜동부팜화옹은 올해 충남 논산의 유리온실 4.95ha(1만5000평)에서 토마토 1000t가량을 출하할 계획이다.

지역 농민들은 동부그룹이 수출하기로 한 토마토의 일부가 내수시장에 풀리게 되면 토마토 가격 폭락은 물론 시설 원에 농가까지 동반몰락할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한편에서 1만8000평 토마토 농사

를 짓는 문정하 하이팜 대표는 "처음 2~3년은 수출을 한다고 해도 가락동에 청과회사까지 가지고 있는 동부가 내수로 돌리는 것은 시간 문제"라며 "기존 토마토 농가의 타격은 물론 기존 토마토 농가가 다른 시설원에 작물로 대체할 경우 과당경쟁으로 인한 동반몰락까지 우려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특히 지역 농민 입장에서 분통터지는 것은 대기업에 국비 등이 지원된다는 사실이다.

동부팜화옹이 부대 시설비 조성 등 명목으로 국비 87억 원을 지원받은 것까지 밝혀지면서 농민들의 반발 수위는 더욱 높아지고 있다.

장성에서 3만5000평 규모로 토마토 농사를 짓는 이희식씨는 "각 지역

농민들이 동부그룹에서 생산하는 비료, 농약, 종자, 수정별, 천적 등 농자재 일체를 사용하지 않는 등 불매운동을 벌이고 있다"며 "소규모 농민들 밥그릇인 농산물 생산분야를 넘볼 것이 아니라 종자산업과 같은 국가적 미래산업에 진출하고 그것을 지원하는 것이 정부와 대기업의 자세"라고 말했다.

지역 토마토 재배농가는 전남이 1400농가에 재배면적 835ha로 전체 토마토 재배면적의 15%를 차지한다. 광주도 평동·분양·임곡 지역을 중심으로 250여 농가(170ha)가 토마토 농사를 짓고 있다.

이들 중 토마토연합회 이사 조합인 광주 평동농협 조합원 농민 30여명을 비롯해 장성·담양·화순·보성지역 토

마토 재배농 300여 명이 지난 5일 세종시 정부청사 앞에서 열린 항의 집회에 참석하는 등 각 지역별로 대책 회의를 열고 있다.

시위에 참석한 홍경희(평동지역 토마토 재배농민)씨는 "대기업 농업 회사가 첨단시설과 대규모 온실을 갖추고 생산, 가공, 포장, 유통까지 해서 내수 시장까지 장악할 경우 시설원예 영세농가는 몰락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동부팜화옹은 지난 4일 성명서를 통해 "화성 유리온실단지에서 생산된 토마토는 일본 등에 수출되기 때문에 국내 시장을 어지럽힐 것이라는 주장은 맞지 않다"고 강조했다.

/이은미기자 emlee@kwangju.co.kr

수출중소 원화강세 직격탄

올 적자기업 비중 작년보다 10%P 이상 늘 듯

원화 강세가 이어지면 영업적자를 내는 수출 중소기업의 비중이 지난해보다 10%포인트 늘어날 것으로 추산된다.

금융감독원은 2011년 재무제표가 등락된 외부감사 중소기업 가운데 수출실적이 있는 722곳을 상대로 스트레스테스트를 시행한 결과를 6일 발표했다.

그 결과로는 경기침체와 환율하락에 따른 매출감소로 영업적자 기업 비중이 10%포인트 늘어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722개 기업 가운데 72개 기업은 지난해 흑자에서 올해 적자로 돌아설 수 있다는 뜻이다. 스트레스테스트는 매출액 증가율이 지난해 2.2%에서 올해 1.1%, 원·달러 환율이 지난해 말 1071.1원에서 올해 1000원까지 떨어지는 것을 가정했다.

이때 수출 중소기업의 영업이익률(매출액 대비 영업이익의 비율)은 5.5%에서 3.2%, 기업 수입 가운데 얼마를 이자비용으로 쓰는지 보여주는

이자보상배율은 2.7배에서 1.5배로 감소했다.

업종별로는 전기·전자업종의 영업이익률이 지난해 3.4%에서 -0.1%, 섬유업종이 0.1%에서 -2.2%로 적자전환이 예상된다. 자동차업종은 4.7%에서 1.9%로 떨어질 수 있다.

금융원이 국민, 신한, 우리, 하나, 외환, 산업, 기업, 농협 등 8개 은행 조사에서 원·달러 환율로 가장 타격이 큰 업종은 정보통신(IT)과 자동차, 조선업종인 것으로 파악됐다.

일본 업체들과의 수출 경쟁도가 높아져 엔화 약세가 지속하면 가격경쟁력 저하와 시장점유율 떨어질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환율 손익분기점도 임박한 것으로 드러났다.

수출 중소기업 236곳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는 원·달러 손익분기점이 1,069.1원, 원·엔이 1,214.4원으로 나타났다.

/연합뉴스



전통시장을 이용합니다 6일 광주전남지방중소기업청 및 중소기업중앙회 광주전남본부 등은 광주 서구 양동시장에서 '설명절 맞이 온누리상품권·전통시장 이용 캠페인'을 열었다. 이의준 광주전남중소기업청장이 온누리상품권으로 상인에게 물건을 구입하고 있다. <광주전남중기청 제공>

“중소 손톱밀 가시 찾아라”

17개기관 TF팀 구성

광주·전남지방중소기업청과 중소기업중앙회 등 17개 중소기업 관련기관이 '손톱 밀 가시뽑기' 태스크포스(TF)팀을 구성, 활동에 들어간다.

6일 광주전남중기청에 따르면 이 TF팀은 중소기업의 경영활동을 어렵게 하는 각종 제도적 문제와 규제를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발굴·개선하기 위해 과제 발굴 및 과제 검토 등 2개 팀으로 구성된다.

과제 발굴팀은 중소기업을 직접 찾아 현장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도록 광주전남중기청과 중소기업중앙회, 소상공인진흥원, 여성경제인협회 등이 참여한다. 과제 검토팀은 중소기업융합부산실, 중소기업연구원, 중소기업청 등이 주축이 돼 발굴된 가시를 뽑을 수 있는 방안을 집중적으로 검토하게 된다.

아울러 각종 제도의 불합리와 개선이 필요한 규제에 대해 중소기업청 홈페이지(www.smba.go.kr)와 비즈인포(www.bizinfo.go.kr)를 통해 온라인 신청을 받고 있으며 중소기업 관련 기관 모두 현장접수를 병행한다.

/임동률기자 exian@kwangju.co.kr

업무협약 체결

6일 광주테크노파크 유동국 원장과 한국정책금융공사 장성택 광주지사장 등 양 기관 관계자들이 광주테크노파크에서 광주지역 중소기업 금융지원 확대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광주테크노파크 제공>

광주테크노파크·정책금융공사 광주지사 중소기업 금융지원 확대 업무협약

광주테크노파크가 6일 한국정책금융공사 광주지사와 광주지역 중소기업 금융지원 확대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두 기관이 상호협력체제를 구축, 지역 중소기업의 정책자금 활용 증진과 함께 금융지원 확대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 협약의 주요 내용은 ▲정책자금 활용 홍보(On-Lending, PEF, Fund 등) ▲정책자금 활용 지역 중소기업 발굴 및 지원 ▲중소기업 해외 수출 프로젝트 등을 통해 지원 ▲광주지역 산·학·연·관 네트워크 참여 등이다.

광주테크노파크 관계자는 "기업들이 자금난에 시달리면서도 정책금융

에 대한 정보를 알지 못하고 있거나 방법 및 절차에 대해 이해도가 떨어지는 경우가 많다"며 "정책금융공사의 정책자금을 적극 활용토록 권장하고 유망 중소·중견기업을 발굴해 지역 글로벌 기업 육성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지난해 8월 국내 처음으로 광주에 지사를 설립한 정책금융공사는 광주와 전남·전북·제주도 중소·중견기업을 대상으로 온랜딩 대출(정책금융공사가 중개금융기관(은행)을 통해 중소·중견기업에 정책자금을 지원하는 금융제도) 및 직접대출 업무 등을 맡고 있다.

/임동률기자 exian@kwangju.co.kr

작년 10대 그룹 투자, 계획보다 5조4000억 줄어

지난해 10대 그룹이 공격적인 투자 계획을 세웠지만 실제 집행액은 크게 못미쳤다.

작년 10대 그룹은 총 121조5140억원의 투자를 계획했으나 글로벌 경기 불황으로 인해 투자시기를 조절한 탓에 5조3936억원을 덜 투자한 것으로 집계됐다. 6일 연합뉴스가 10대 그룹의 2012년 투자계획과 실제 집행금액을 분석한 결과 삼성, SK그룹 등 총 7개 그룹이 계획했던 투자를 실제로 집행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투자계획을 발표했던 작년 초만 해도 글로벌 경기가 하반기에는 회복될 것이라는 기대에 따라 과감한 투자를 밝혔지만 유럽발 재정위기와 미국의 경기침체 등이 계속되면서 집행 시기를 늦춘 결과다.

10대 그룹중 유일하게 LG그룹은 집행액이 계획보다 늘었다.

총 16조4000억원을 계획했던 LG 그룹은 LG전자와 LG디스플레이 등이 올레드 TV를 포함한 최첨단 제품 개발에 적극 나서 계획보다 4000억원

조달청 관리 시설공사 우수 중소기업 56% 공사대금 설 전 조기지급

조달청이 6일 설을 앞두고 직접 관리하는 시설공사에 대해 공사대금 조기 지급에 건설업체 및 하도급업체의 자금조달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조달청은 현재 68개, 3조4000억 상당의 공사현장을 직접 관리하고 있으며 공사대금 조기지급을 위해 지난 1일까지 기성검사를 완료했다.

설 전 지급되는 공사대금이 655억 원 규모로, 연휴 전에 하도급업체와 자재납품업체, 장비임대업체, 현장근로자에게 대금이 지급되도록 할 예정이다.

/임동률기자 exian@kwangju.co.kr

올해 우수 중소기업의 56.1%가 신입사원을 채용할 계획인 것으로 조사됐다.

대한상공회의소는 최근 종업원 50명 이상 우수 중소기업 503개사를 대상으로 2013년 채용계획을 조사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6일 밝혔다.

채용 규모는 '작년과 비슷한 수준'이 50.4%, '줄어졌다'는 30.1%, '늘어졌다'는 19.5%였다. 채용 계획을 확정된 기업 1개사당 9.4명으로 집계됐다.

고졸 채용 인원은 1개사당 평균 6.6명으로 대졸보다 많았다.

/연합뉴스

코스피지수 1936.19 (-1.99)	코스닥지수 502.56 (+4.40)	금리(국고채 3년) 2.72% (-0.03)	원·달러 환율 1088.10원 (+1.10)
--------------------------	-------------------------	-----------------------------	-----------------------------

축석 프리미엄 뷔페
아이엘리시아
특허청 서비스표등록 제41-0187289호

150여가지의 **축석메뉴**(샐러드, 양식, 일식, 중식, 한식)를 온 가족이 마음껏 취향에 따라 드실수 있는 **축석 프리미엄뷔페!!**

가격안내
(이용시간: 11:30~22:00)

- 평일 성인(중학생이상) 25,000원
- 토·일·공휴일 성인(중학생이상) 29,000원

각종 모임 및 행사예약 (150석, 92석, 52석, 32석, 24석, 12석)

- 돌잔치, 피로연, 회갑연, 칠순연, 세미나 | ● 출장뷔페, 도시락

예약문의 062)671-1199 | 광주종합버스터미널 2층

24시 유·스퀘어사우나

각종 편의시설 수면실(침대) · 인터넷 · 안마기 · 세션 · 세화

유·스퀘어 2층 아이엘리시아 옆 문의전화 062) 352-4455 | 터미널 주차장 2시간 무료

http://www.hankooktea.co.kr **한국제다**

대한민국 차 부문 **전통식품 명인지정**

한국제다는 10만평의 자가농장과 60년의 제다
 各種 유기농 제다 대한민국 식품 명인 선정
 국제 녹차 품평에서 최우수상 수상
 2009년 식품평에서 1등상(금상) 수상
 LA外 3개국 수출증 ISO 22000 인증 획득
 전 세계로 나가는 아시아나 기내에 엄선된 名師의 차만 남품
 名師의 高貴한 선물은 名師이 만든 名茶를 冠합니다.

·광주 차생원: 062)224-2912 ·광주 신세계점: 062)369-1242 ·광주 롯데점: 062)221-1057 ·광주 현대점: 062)510-7040
 ·목포 차생원: 061)281-1002 ·서울 차생원: 02)759-2983 ·부산 차생원: 051)256-7007-8 ·광주광역시 동구 소래동 76-3 T.222-2902,3973